



성폭력 상담소



◀ 세화유치원 학부모 성교육 강의(임복희 강사, 12월5일)

‘실태조사, 성폭력 및 상담소 얼마나 알고 있나?,>
성폭력예방 캠페인’ <광주보건소 앞 11월11일>



- 여기는 상담실 입니다
- 2011년 하반기 상담통계
- <설문조사-광주시민 100에게 묻다.>
- 성교육 전문강사 모임에 참여하며....
- 재미있게 배운 내 몸과 친구들의 몸
- 상담소 활동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내담자 나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지난 10월에 동네 선배(남자)가 문자 메시지로 내 여자 친구도 자기 집에 놀러오기로 했으니 오라는 것이다. 밤 늦은 시간이고 내일 학교도 가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몇 시간 지체하니 계속 전화하여 안오면 '쌍(더 이상 만나주지 않음)' 할거다. 라는 말에 왕따 당하는 무서움 때문에 갔어요. 선배 집에는 부모는 없고 형과 형 친구가 자고 있었고, 온다는 여자 친구는 한 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문자 메시지)하여 빨리 오라고 하니 '금방 간다.' 라는 말을 하고 오지 않고, 그곳에 더 이상 있기 불편하여 내일 학교에 가야하니 그곳을 나왔어요. 그런데 선배는 시간이 늦으니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혼자 갈수 있다고' 했으나 따라 나왔고, 주변은 캄캄했고 그때 돌변한 선배는 어딘지 모른 곳으로 끌고가서 저를 성폭행했어요. 저는 이 일로 몸도 마음도 망가졌어요.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전화 주셔서 고맙워요.
 이 일로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텐데 함께 할 수 있어 참 반가워요. 어려움은 나누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당황하고, 수치스럽고, 배신당한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나 또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왕따하겠다는 협박과 친구가 온다는 거짓말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선배가 참 나쁜 사람이군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지, 부모가 알면 저희 상담소로 함께 오셔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다시 상담이 가능 할까요?

** 이후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은 국가(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는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1. 경찰서 신고 접수 →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기소 예정)
2. 의료지원은 정신과 상담과 현재 심리상태의 검사를 받았고, 산부인과 진료(성병, 에이즈, 임신 등)도 받았습니다.
3. 법률지원으로 피해자를 변호 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들때 전화하세요. 031)797-7032

* 상담은 무료입니다.



2011년 상담통계 현황(하반기)

1. 상담 통계(7월~12월)

1) 상담 내용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체상담 455건수에 성폭력은 219(48%), 기타상담 236(52%)은 가정폭력,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기타로 집계되었다.

구분	계	성폭력 상담	기 타 상 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계	455	219	236	7	0	6	37	109	68	0	9

2) 상담의뢰인/상담방법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담 의뢰인은 전체 455건에 본인 282건(62%), 가족 및 친인척 34건(8%), 동료 · 이웃 · 교사 64건(14%), 기타 14건(3%), 이주여성 61건(13%)로 집계되었다. 상담 방법은 내방 132건(29%), 방문 220건(49%), 전화 52건(11%), 기타 51건(11%)으로 집계되었다.

구분	계	상담의뢰인					계	상담방법				
		내국인				외국인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교사	기타	이주 여성						
계	455	282	34	64	14	61	455	132	220	52	0	51

3) 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피해자 지원내용은 전체 455건에 심리정서지원 333건(73%), 수사 · 법적 지원 27건(6%), 의료지원 24건(5%), 기타 71건(16%) 집계되었다.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기타
계	455	333	27	24	0	71

위와 같이 상담소에 하반기(7월-12월)상담을 의뢰한 내담자는 총 455명이었다. 전체 상담 건수에서 성폭력은 58%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의뢰했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중 수사·법적인 지원과 의료지원 경우의 대부분은 심각한 성폭력피해가 있었던 내담자이다. 이들은 피해로 인한 정신과 또는 산부인과 등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성범죄자를 신고하여 수사 의뢰를 하고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이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에 의해 연계되고 있다. 의료지원 (산부인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은 지역 또는 경기도 내 가까운 전문병원과 연계하고 있다. 법률지원(무료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은 이곳에서 법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수사 또는 재판과정(경찰서, 경찰청, 법원)에 동행, 동석, 참관 등 하고 있고, 타상담소, 쉼터 등 연계를 하고 있다.



광주시민 100인에게 묻다.

류 복 연 (상담소장)

당신은 '성폭력과 상담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성폭력에 대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83명) ② 알지 못한다.(13명)
③ 기타(4명)

2. 성폭력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① 강제로 내 몸을 만지고, 야한 농담 등을 수치심을 갖게함(92명)
② 나의 동의를 얻고 서로 좋아서 하는 스킨십의 행동(6명)
③ 기타(2명)

3. 주변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51명) ② 없다.(49명)

4. 성폭력 사건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① 무섭고 화났다.(42명) ② 불쌍하다.(28명)
③ 모르겠다.(30명)

5.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신고한다 (80명) ② 신고하지 않는다.(2명)
③ 모르겠다.(18명)

6.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문날까봐 (28명) ② 보복 등 두렵고, 귀찮아서(39명)
③ 모르겠다.(33명)

7. 우리지역(광주시)에성폭 력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14명) ② 알지 못한다.(85명)
③ 기타(1명)

8.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①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과 쉼터 연계, 수사(법정)동행과 참관 등 피해자를 무료로 지원(40명)
- ② 상담만 한다.(2명)
- ③ 기타(58명)

9. 주변(아는)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지역(광주)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를 알려 줄 수 있나요?

- ① 알려 준다. (86명)
- ② 알려주지 않는다.(14명)

지난 11월11일(오후2시 - 4시) 광주보건소 앞에서 지역민 100명 대상으로 위 표와 같은 내용으로 '당신은 '성폭력과 상담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역민은 성폭력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씨울여성회 성폭력 상담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해 80% 이상 알고 있으며, 성폭력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하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이라고 90%이상 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이 발생하면 80% 이상 신고를 하고,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알려주겠다는 답을 하였다. 최근 몇 년간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상담소가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 내 외이며, 모른다는 답을 한 사람이 85%였다. 이 조사를 처음 실시할 때 우려반 염려반의 심각한 결과가 드러났다. 10년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 그리고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에 성찰을 해본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위 조사 결과에 의해 체계적,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는 광주시 10개 읍면동을 찾아가서 지역민 대상 교육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역민들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가 발생시 함께 도와주는 건강한 시민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상담소를 홍보한다.

성교육 전문가 모임에 참여하며....

〈성교육은 전인교육입니다.〉

조 형 자 (제 9기 성교육전문강사)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때 보다 급변 했습니다. 교육환경 역시 매우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생을 다하는 날까지 성(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性)교육하면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건, 위생, 청결 등을 생물시간이나 가정 시간에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난다. 나는 2011년5월-7월사이 씨울여성회에서 제 9기 성교육 전문강사양성 과정에 입문하여 배우면서 성(性)에 대한 개념과 인식, 의식, 가치관, 행동, 태도, 자위, 임신, 낙태, 성병, 성폭행, 예방, 처벌, 치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웠다. 이 과정은 올바르지 못한 성행동과 태도와 인식 때문에 씻지 못할 성범죄 예방과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해 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성인,노인의 성까지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은 아름다우며 행복한 선물이고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인지시키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인문 사회학 그 어떤 교육보다 가정, 학교, 사회,국가에서 성교육을 우선하여 건강한 영,혼,육,기초위에 세상교육을 공부하여 훌륭하고,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는 중대한 성교육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의 경험과 체험, 지혜를 바탕으로 성교육전문강사로 훈련받은 과정들을 접목하여 성폭

력 예방과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성교육 전문강사'를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씨울여성회 성교육 전문강사는 수료한 후에 매주 목요일(오전10시-12시) '성강사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성교육 대상(아동, 청소년, 성인)별 주제를 정하여 공부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멋진 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강의 시연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 심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로서 공부하면 할수록 쉽지 않는 어려운 길이란 것을 느낍니다. 천태만상, 천인각색인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가슴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올바른 성도덕과 윤리위에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일 사람을 경악케 하는 성폭행과 인면수심 무너진 성도덕과 관련된 사건 기사와 이슈를 접할 때 가슴이 답답해 움을 느낍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하며 법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선량하며 자기인생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는 질서 있게 돌아가며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든 동안 관련된 자료와 교재로 성심을 다하

여 가르쳐주신 께라분이 상임이사님과 류복연 소장님, 김영숙 선생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공부했던 강미정, 임복희, 배기명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바르고 멋있게 살다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후회 없는 생을 나는 오늘도 손모아 소망합니다.



▲ 조형자 강새(왼쪽 세 번째)



재미있게 배운 내 몸과 친구들의 몸

이미나 (재활플러스 어린이집교사)

“선생님~ 씨울여성회 선생님들 오셨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에 계신 선생님께서 윗반에 있는 내게 큰 소리로 알려주셨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내려가 씨울여성회 인형극 선생님들을 맞이하였다. 인형극 선생님들은 큰 짐을 하나, 두 개씩 들고 원으로 들어오시며 밝게 인사를 받아주셨다. 어린이집에 첫 근무를 하며 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여 매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아직 1년도 안된 나는 신입교사이다. 수업을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할지, 나의 성별을 어떻게 인지 시켜주어야 할지 등..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하여 보고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곤 하였다.

우리 원은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 장애 아동이 많아 계획하고 준비했던 성교육의 수업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면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나와 함께 같은 반에서 일하는 짝궁 선생님께서 성교육에 대해 많이 피드백과 조언을 해주셨고,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성교육 인형극이 있음을 알고 신청을 해주어 시원한 가을날 재활플러스 어린이집에 씨울여성회 성교육선생님이 방문해주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광주씨울인형극단에서 성교육 인형극을 공연해 주신 씨울여성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재활플러스어린이집 인형극공연(10월18일)

상담소 활동

상담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아동과 장애청소년 대상 인형극공연과 초,중,고등학생을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및 성평등확립을 위한 성교육을 하였다. 특히 하반기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유 회복프로그램과 성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멘토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최근 들어 청소년 성범죄자의 증가에 따른 개별 교육과 상담을 1:1로 진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또한 성폭력예방(성평등)을 위한 홍보사업은 매월(8월-12월)1회 지역민을 직접 만나는 길거리 캠페인(부스 홍보)으로 안내장 배포, 조사를 하였다.

■ 유관단체 네트워크 활동

◆ 광주시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사례회의

본 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7월29일 북부행복나눔센터의 사례회의에 소장이 참석했다.

◆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사례회의

9월5일은 학교 내 폭력(위협)에 노출된 중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 사례회의에 참석하고, 10월17일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긴급지원(생활비, 의료비, 상담료)을 위한 심의회의에 소장이 참석하다.

◆ 성남지방검찰청 ‘검사’와 간담회

광주, 성남, 하남에 소재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성폭력전담수사 검사와 8월 24일 열린 간담회에 소장이 참석하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

◆ 광주경찰서 장애인 성폭력예방 간담회

‘도가니’ 영화로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지역에도 21개 장애인시설이 있다. 광주경찰서가 10월31일 개최한 유관 단체 간담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장이 참석하였다.

◆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도가니’ 영화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사회 문제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외계층 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었으며 지속되었다. 광주시청 사회복지과(11

월7일- 11월18일)는 12일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내는 21개소 시설 중에 6개소 (동산원, 향림재활원, 품안의집, 은혜동산, 베다니동산, 소망의동산)를 전수(표본)조사했다.

이 조사에 활동가 권숙향, 김영숙, 류복연이 참석하였다.

◆ (사)경원사회복지회 여성단체와 홍보활동 연대하다

- 지역 내 성매매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11월11일)은 성남에 소재하는 경원사회복지회와 연대하여 광주 보건소 앞에서 하다. 각 기관들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홍보물 전시. 배포 그리고 무엇이 성폭력(성매매)인지 설명과 조사를 하였다. 경원사회복지회 6명과 본 상담소 활동가 등이 참석하였다.



▲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보건소 앞
(11월11일, 경원사회복지회 활동가)



▲ 성폭력 예방 및 상담소 실태조사
(11월11일, 씨울여성회 활동가)

- 경기도 내 7개시 9개소 장애시설 입소자와 교사 대상 성교육을 진행한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사업 토론회(11월18일)에 소장과 조형자 성교육 강사가 참석하다.

◆ 광주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광주시 여성가족과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도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찰서, 본 상담소와 연대하여 11월24일 진행하였다. 이는 아동안전과 관련 관내 초등학교 중심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 파악 및 시의 적절한 활용과 용이성 확보한다. 아동안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 조사에 조사요원으로 권숙향, 성폭력 예방과 안전 교육은 강미정 성교육강사가 참석하였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추방기간’ 포럼

제 1회 성폭력추방기간 11월25일 - 12월1일의 일주일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캠페인, 포럼 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11월30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가해청소년의 집단 성폭력사건에 대한 포럼에 소장이 참석하였다.

◆ 여성가족부 '성폭력추방기간' 기념식 및 포럼

여성가족부는 제 1회 성폭력추방 기념식과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12월1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소장과 한이임 자원활동가가 참석했다.

■ 교육(사업) 활동

◆ 성폭력예방(성평등) 교육 실시

● 비장애인 대상 청소년 성교육

초·중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과 성평등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이 10개 학교 약 2000명이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7개교(약1000명), 중학교 3개교(약1,000명)에 7명의 성교육 전문강사 강미정, 권숙향, 김영숙, 배기명, 안상미, 임복희, 조형자강사가 수고했습니다.



▲ 광주중학교 3학년 성교육 강의(강미정 강사)



▲ 광주중학교 3학년 성교육강의(조형자 강사)

● 장애인 대상 청소년 성교육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1년간 연속 진행했다. 장애 청소년의 성교육은 지속적인 반복 교육의 중점을 두고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진행하였다. 모현초등학교는 권숙향 강사, 성보정 보고등학교는 강미정 강사가 수고했습니다.



▲ 모현초 성교육 하는 권숙향 강사

◆ 성교육 인형극 공연 실시(광주시 지원)

지역 내 아동과 장애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의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성교육 인형극을 진행하였다. 아동과 장애청소년이 쉽고 재미있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성교육 인형극 관람은 약 3,000명 아동, 78곳(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과 약 500명 장애 청소년(동현학교, 인덕학교, 한사랑학교, 삼육재활학교, 성분도복지관)이 참여했다. 인형극 공연은 '광주씨울인형극단'의 유옥란 단장과 권숙향, 이산하, 이해영(충무) 단원이 수고했습니다.



▲ 약 150명 관람하는 경안초등학교생(대강당, 9월22일)



▲ 약 120명 관람하는 혜원어린이집 원생(대강당, 10월4일)

◆ 자녀를 둔 학부모 성교육 실시(광주시 지원)

성폭력피해자, 가해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성상품의 범람과 쉽게 접하는 유해 음란물의 무방비로 노출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 자녀에 대한 성교육은 부모가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내 학부모대상 성교육은 7회 실시(11월29일 ~ 12월9일)하였으며 약 500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수고해 주신 강사는 강미정, 김영숙, 류복연, 배기명, 임복희, 조형자 선생입니다.



▲ 초월시립어린이집 학부모 성교육 강의
(배기명 강사, 11월30일)



▲ 세화유치원 학부모 임복희 강사 성교육 강의(12월5일)

◆ 성폭력 가해자 예방 멘토링 사업 실시(여성가족부 지원)

인터넷 보급과 유해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성범죄 고위험성이 있는 초등학교 7명(멘티)에 대한 4명 멘토가 1:1의 상담, 교육,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멘토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과 슈퍼비전에 참여하고 멘티와 30회(전화, 면접)성교육을 진행했다. 수고해 주신 멘토는 김영숙, 남태경, 배기명, 안상미 선생이며, 슈퍼비전은 소용주 박사가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 멘토 슈퍼비전을 진행하다.

◆ 집단 성폭력 프로그램 실시(여성가족부 지원)

여학생의 '내 몸은 주인은 나'라는 주제로 집단 성교육과 1박2일 캠프를 진행하였다. 성인식 점검, 성폭력 개념, 성폭력예방과 대처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진행한 10회기 성교육과 1박2일 캠프는 양평군 산음숲 자연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수고해 주신 주강사는 소용주, 원정언강사이며, 보조강사는 강미정, 권숙향, 김영숙, 김을미, 류복연, 배기명, 양경애선생이다.



▲ 변천초등학교 5학년, 원정언 강사
(산음숲자연학교에서, 10월21일-22일)



▲ 광지원초등학교 5학년, 원정언 강사
(산음숲자연학교에서, 10월7일-8일)

◆ 인형극반 모임 동아리 사업실시(광주시 지원)

지역 내 아동과 장애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 성평등 교육을 인형을 활용하여 공연을 한다. 단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공연관람, 단합모임을 하고 장

애시설 성분도 복지관에 찾아가는 성교육 인형극을 공연하였다. 단원에게 교육해 주신 예소리 대표(이정식)님이 수고해주셨다.



▲ 공연 인형을 만들고 있는 단원(예소리 극단 교육관에서)

■ 소모임 활동

◆ 성교육 강사반 모임

전 연령층 대상 성교육을 책임지는 성교육 전문강사들의 모임은 매주 수(또는 목, 오전 10시-12시)요일 진행한다.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성교육과 직장(군인 등)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하였다. 강미정(회장), 권숙향, 김영숙, 류복연, 배기명, 임복희, 조형자 강사가 참여한다.



▲ 성교육 강사 단합모임(조형자 강사 맥, 12월28일)

◆ 성교육 인형극반 모임

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찾아가는 성교육 인형극 단원들은 이들 위한 쉽고 재미있는 공연을 위해 시나리오 기획과 공연작품 만들기, 공연연습 등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오전10시-12시)모임에 권숙향, 김영숙, 유옥란(단장), 이산하, 이해영(총무) 단원이 참여한다.



▲ 성교육강사 모임(10월13일)



▲ 공연 소품 인형을 수선하다.

■ 홍보 활동

홍보 활동은 성폭력예방 뿐 만 아니라 상담소를 홍보하여 지역 내 폭력피해 받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12월까지 5회(매월 1회)캠페인을 진행했다.

홍보는 활동가와 양희경 사회복지 실습생이 수고해주셨다.

- 3회(8월27일 9월24일, 10월22일, 오전11시 - 오후4시)는 구광주시청 주차장에서 홍보물 배포와 상담소 홍보에 중점을 둔 캠페인 활동이었다.
- 11월11일은 광주보건소 앞 도로에서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고, '성폭력과 상담소 알고 계십니까?' 에 대한 실태조사(100부)를 진행했다. '성폭력' 에 대해 80%이상이 안다고 답을 한 반면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약85%가 모른다는 답을 하였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2회 찾아가는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성범죄 발생도 줄이고, 피해자가 쉽게 이용하는 상담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 12월23일(오후2시- 4시) 광주 5일 장날에 경안시장 입구에서 홍보물 전시와 배포, 조사 등을 하였다. 성범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낯선 사람'을 외국아이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성인식조사'도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 기타활동

- 7월 광주시여성주간행사, 경기도청 시설점검
여성분과 회의
광주여성연대 포럼
성폭력예방 거리 캠페인
씨을 여성회 임시이사회
사례관리 워크샵 참석(북부행복나눔 센터)
- 8월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양성과정 교육
성남지검 검사와 상담소장 간담회(광주, 성남, 하남)
- 9월 청소년지원센터 사례회의 워크샵
여성분과 회의
씨을 여성회 소위원회
경기도 여성단체활동가 워크샵(경기여성연대)
씨을 여성회 홍보(무료 상담)
- 10월 1차 복권기금사업 캠프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 청소년지원센터 간담회(사례회의)
- 경기도의 저출산과 일가족양립 정책 워크숍(경기여성연대)
- 2차 복권기금사업 캠프
- 성폭력예방을 위한 간담회 참석(광주경찰서)
- 11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사업 보고 평가(경기여성연대)
- 장애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광주시청)
- 성폭력예방 캠페인, 설문조사(광주보건소 앞)
- 여성분과 포럼(광주시사회복지협의체)
- 경기도여성발전기금사업 토론회 참석(경원사회복지회)
- 광주여성연대 운영위원, 회원 워크숍
- 여성분과 회의
- 씨을여성회 회원의 날 행사
- 성폭력추방 행사 간담회 참석(전성협-대전)
- 12월 성폭력추방 행사 참석(여성가족부)
- 광주뉴스 창간1주년 행사 참석
- 시설점검(광주시청)
- 숲속어린이집 학부모 강의
- 씨을여성회 정책회의
- 4차 정기이사회
- 광주시사회복지협의체 사업보고 평가 워크숍
- 성폭력예방 캠페인(경안동시장 입구)
- 결혼이민자가정 송년행사
- 활동가 종무식, 10주년 1차준비모임(강원도 강릉)
- 광주여성연대 임원회의

♣ 사람의 가장 좋은 향기 ♣

꽃은 나무가 피워내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꽃을 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이죠

꽃은 저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진한

향을 맡을 수 있고,
좋은 향기는 오래도록 멀리 갑니다.

사람의 향기도 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백리향,
천리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몸에 뿌린 향수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는 가장 좋은 향기는
말에서 풍겨 나옵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는

그 향기가 멀리멀리 갈 뿐 아니라
그 풍금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풍기는
인격의 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전달 되지요.

- 좋은 큰 풍에서 -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여름나들이(8월21일, 경기도 용문
사 은행나무앞에서)



송년감사모임(이선의 가족) ▶
(12월25일, 문화건벤션홀 4층)

- 한국어 교실 수업중에
- 2011년 하반기에 이런활동을~

한국어 교실 수업중에



프엉타오 지엠(베트남) 우리아기 잘생겼죠? ▶

빈여

- 프엉타오 - 지엠 -

가을에서 겨울로

지난 주, 일이 있어 가족들과
남쪽지방엘 잠깐 다녀왔는데
가고 오는 차안에서 바라본
시골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추수를 다 끝낸 들녘에선
하얀 갈대 잎이 흔들리고
“엄마, 저건 꼭 깃털 같죠?”라며
하늘을 가리키는
이삭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깃털 모양으로 흘러가는 구름도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하루도 폭갈지 않은 하늘,
날마다 새롭게 디자인되는
아름다운 자연을 오랜만에
오래토록 바라봤습니다.
멋진 디자이너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말이죠.

제가 좀처럼 장거리 여행이나
외출을 즐겨하지 않는 편인데
서울을 훌쩍 벗어나 달려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하루 종일 운전한 남편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요.

밤사이 눈이 내렸네요.
가을이 속 들어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춥물 훌쩍이는 이삭이에게
따뜻한 배를 먹여 늙게 하고
저도 차 한 잔 마시며 글을 씁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감기조심하세요.
저 역시 지금 감기로 고생중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종종 ^^

Đào mùa thu và mùa đông

Trước gia đình có việc đi một địa phương
ở phía Nam. Đi trong xe nhìn phong cảnh nông
thôn tốt.

Mùa thu hoạch cây trồng, những cây cây lay
lay. “Mẹ, đằng kia chắc chắn giống những
lông vịt sao?” Nhìn theo tay chỉ của
Xa Ki lông vịt tóc trào ra như những đám
mây, nó có thể nói đó là một nghệ thuật.

Bầu trời giống một ngày. Một ngày là một thất
kế mới với vẻ đẹp từ nhiên và nhìn trong một thời
gian dài. Nhìn những ki nung của một
thất kế tuyệt vời và nó là cảm nhận.

Đã giống như đi du lịch. Đến ngoài trời mới ra
sự phát triển nhanh chóng như vẹt (soul) giống
như sự bùng nổ cơn bão. Bất nhiên, 1 số sẽ khác
nhau trong một ngày đồng thời lái xe. Đời sống cũng
ngủ khác một chút.

Trong đêm tuyết đã xuống. Như thách thức đi phu
hợp với mùa thu và mùa đông đã đến. Xa Ki
đã sợ mùa, uống nước lạnh ấm áp và nam. Đời
viết thư này và uống một tách trà.

Chăm sóc sức khỏe tốt hơn và hãy cẩn thận
cảm cúm. Trời cũng bị cảm lạnh. Trời này
tôi gọi nó là một ngày Chong Chong.



부티반(베트남) 왼쪽첫번째 일일카페 자원활동 ▶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밤송이처럼 등위에 온통 보보죽한
가시가 나 있어요. 위험을 느끼면 가시를
||우고 몸을 동그랑게 말아 방어하지요.
고슴도치는 눈은 안좋지만 냄새를 잘 맡아요.
낮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Nhiệm

Có một hình dạng giống vỏ của hạt dẻ, bên lưng có những
chiếc gai rất nhọn. Khi gặp nguy hiểm những chiếc gai
còn dựng đứng lên, toàn thân xé cuộn tròn lại để tự
xả vệ mình. Có mang đôi mắt nhìn không được rõ
ràng lại có cái mũi quỉ quỉ rất thính. Thuộc loại
tổng vật ban đêm, khi ban đêm đến chúng hoạt động rất nhanh.
멧돼지.

산에 사는 돼지인 멧돼지는 집돼지와 달리 날렵하고 민첩해요.
벅벅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고, 입 양쪽에는 기다란 송곳니가 있어요.
송곳니는 무척 날카로우어서 나무뿌리를 자르거나 싸움을 할 때 무기로
사용해요. 깊은 산속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어 무리를 지어 살아요.
겨울엔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기도 해요.



량정정(중국) 예쁜아기와 함께 ▶

Lợn rừng

Lợn rừng sống ở nơi có diện tích khác với lợn nhà là lợn rừng rất nhanh. Thân thể có mang bộ lông cứng. 3 hai cạnh mềp có hai chiếc răng nanh dài và nhọn sắc có khả năng cắt được rễ cây và dùng làm vũ khí khi đánh nhau. Sống ở trong rừng sâu hoặc chỗ nhiều cây cối. khi mùa đông tới chúng đi kiếm ăn, có thể xuống chỗ dân ở.

량정정의 행복한 생활

저는 2009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남편이 공항에는 나를 마중을 가 주셨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남편과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남편하고 시부모님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말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많이 도와 주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2010년 9월 26일, 우리는 결혼식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예쁜 선물을 사 주셨습니다. 남편도 반지, 목걸이, 팔찌 사 주었어요. 결혼식 날 처음 한국말을 입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2011년 1월 저는 임신 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기뻐요 또 축하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에 와서 2년 됐어요. 그동안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2011년 7월 5일 화요일.

2011년 하반기에 이런 활동을

2011년은 이민 온 여성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지난해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계획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생각들을 모아 보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돈벌이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준비반과 국적취득을 위한 준비를 겸하여 한국사회와 문화 이해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가장 기뻐던 일은 이민여성 2명이 한국어능력시험 3, 4급에 합격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로 다른 여성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는 좋은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1. 한국어 교실

상반기 1학기에 이어 이민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 화, 수, 금요일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면서 수요일은 주로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와 함께 병행하는 것은 이들의 귀화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러 가지 않은 날에 센터를 찾아와서 공부하는 실정이기에 언어 습득의 실력이 생각만큼 진도가 나지 않는 것이 답답하지만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인성과 더불어 정착의 단계를 위한 모임의 성격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 일 시 : 17~12월 매주 화,수,금요일 오전 오후반 (7월중순~8월중순 방학)
- 장 소 : 교육관, 사무실
- 강 사 : 이경자, 윤영애, 성명옥

1.2 몽골학생 특별반 운영

어머니 바기씨가 암 투병을 하고 있어 어린 아들 빌리크(14세)가 혼자 몽골에 남아 있다. 지난 5월 초에 한국으로 와서 몽골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이 하여 광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빌리크를 지도한 분은 문해교육사인 오희영 선생이 7월 14일부터 한달간 담당해 주었다.



2. 한국어 교실 여름방학하다.

8월 22일 주간부터 2주간 여름방학하고 9월 6일부터 개학하다.

3. 가족 나들이를 다녀 오다

매년 여름철에 이민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떠났는데 이번 여름에도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런 나들이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좀더 관계가 증진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일 시 : 8월 21일 일요일
- 장 소 : 용문산 계곡(경기도 양평)
- 참석 인원 : 성인 42명, 아이들 24명



4. 요리 실습을 하다

7월 8일에 윤영애선생님댁에서 베트남 음식 땡쫄을 요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2 광주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추석에 맞이하면서 한국 요리를 4차례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19, 26, 9월 2, 9일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5. 광주시 의회 방문하다.

7월 8일에 광주시 소미순의원 초청으로 결혼이민자들 15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의 역할 등을 설명 듣고, 의회를 둘러보고 시청 식당에서 식사대접을 받았다.



6. 영화 관람

한국에 와서 극장을 한번도 못 가보았다고 해서 영화 관람을 했다.

광주에는 극장이 없는 관계로 성남 롯데시네마에서 10월 14일에 ‘도가니’를 19명이 관람하였다.

7. 광주 왕실도자기 축제시 외국인 장기자랑 참여

10월 23일에 외국인 장기자랑에 참여하여 노래부분 은상에 정도향(중국), 인기상 장예은(중국), 참가상 참찬니(캄보디아), 관주영(베), 보티투송(베)이 받았다.



▲ 시상식



▲ 은상 수상한 정도향

8. 성명옥 센터장이 중국을 다녀오다

센터장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송출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하였다. 이번에는 중국 심양 서탑교회를 중심으로, 연길에서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문과 용정, 장백산으로 해서 장춘으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다녀 왔다. 한족과 동포들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현장을 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것을 느꼈다. 동포들의 이주로 말미암아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과제가 될 것 같다.

중국의 눈부신 발전과 활기찬 상황을 보면서 세계화되어가는 세계경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자본을 따라 이주하여 조선족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 심양 서탑교회에서



▲ 두만강에서- 뒤에 보이는 곳은 북한

9. 송년감사모임

12월 25일 오후 3시~6시에 까지 문화부페에서 150여명이 성탄과 송년 감사모임을 가졌다. 한해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맛있는 저녁식사와 가족 노래와 씨을인형극단이 준비한 성교육 인형극 관람을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교육 인형극 공연중...



▲ 관주영(베) 가족

10. 돌 및 출산

7.30	투용 아들 정균 돌	9.1	팜티드영(홍수진) 아들 출산
10.5	량정정 득녀	11.17	부티홍 득남
12.2	절자르갈 득녀	12.21	강리리 득녀
12.22	탕한메이 득녀		

11. 상담 활동

가정불화 16건, 체류 관계 8건, 건강문제 4건 자녀 문제 4건,
부부이혼(전후) 5건, 친정나들이 5건

12. 그 외 활동

- 7.6 빌리크 체류 연장 서류 작성
- 7.7 총회 이주민선교협의회 임원회의
- 7.8 광주시 의회 방문
- 7.14 바기와 수원출입국관리소 빌리크 체류 연장 차 방문
- 7.18 김경수(김노라 자)에게 자전거 증명
- 7.19 다문화 가정 어린이 성교육 참가
- 7.20 여성주간 행사 참여
- 7.21 성남지방법원 방청(조0, 8.18, 9.15)
- 7.22 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회 참석(8.26)
- 7.26 노라 공부방 심방
- 8.11 예장 평양노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다문화 사역 소개
- 8.30 서울노회 다문화 세미나 발제
- 9.5 <이주민 선교와 신학> 출판기념회 참석(예장 총회 국내선교부 주관)
- 9.29 수원출입국관리소 방문(J씨 체류 연장 건)
- 10.6 병원 동행: 씨 백혈병 중간 점검을 위해 경희의료원에 동행(10.6)
- 10.13 광주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모임 참석(10.13)
- 10.16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 참석(10.16)
- 10.18 이은주 박사 목사 안수위원으로 참석(10.18)
- 10.25 서울장신대원 여원우회 월례회 말씀(10.25)
- 10.29 권순정(자봉) 결혼식 참석(10.29, 한신대학원)
- 11. 3 NCKK 양성평등위원회 참석(11.3)
- 11.10 12.1 H씨 재판 참석 (11.10), H씨 선고 공판 참석(12.1)
- 11.24 광주여성연대 워크샵 참석(11.24)
- 11.29 씨을회원의 날 참석(11.29)
- 12. 1 A씨 법률구조공단 동행(12.1)
- 12. 7 B씨 쉼터 동행(12.7)
- 12. 1 A씨 법률구조공단 동행(12.1)
- 12. 7 B씨 쉼터 동행(12.7)



씨을가족 소식

♣ 광라분이 상임이사

광라분이 상임이사는 지난 9월부터 이 지역의 여성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꿈자람도서관에서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읽고 있다.

♣ 윤혜경이사

초월시립 어린이집 부원장이며, 장애청소년 성교육과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다방면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요, 씨을여성회 이사님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 윤영애 감사

본회의 감사이시며 팔방미인으로 손꼽히는 깐깐하고 다정하신 분으로 늘 지칠줄모르는 열정으로 매사에 임하시는 감사님!! 실무자들의 멘토로서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 조형자 성교육강사

본회 성교육 전문강사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성교육 강사활동에 자신감 충만!! 용기백배 ~ 늘 배우는 자세로서 겸손을 몸에 익힌 조형자 선생님 새해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 이난하 인형극단원

차분한 성격에 말솜도 잘하시고 인형만들기도 똑딱~ 한가지를 알려주면 열가지를 소화해 내는 적극적인 단원활동에 감사드려요.

♣ 이해영 인형극단원

빼곡한 인형극공연 일정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자리를 함께 해준 선생님 올한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인형만드는 솜씨 없다고 하시면서도 어느새 완성하시는 노력파!!지요.

♣ 사회복지 실습년생님들

- 양경애선생님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며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교육파트에 재능이 있어요.

공부외에도 독서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특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세요.
본회 회원님도 되주시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김을미선생님

사회복지기관에 꼭 필요하신분이시죠. 스스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누구나 허물없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도 다 들어줄것 같은 편안함을 장점으로
지닌 선생님 고마웠어요.

- 양희경선생님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며 고민하고 하소연하시던 희경쌤~

잘 하는 게 밥밖에 없다며 그것도 봉사가 되냐고 묻던 공주선생님!!

한참 바쁠시기에 오셔서 수요집회, 거리캠페인, 서류정리등등 너무 애쓰셨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맛있는 씬장에 배추쌈싸서 먹고 싶어요. 해주실거죠? 실무자들 힘내라고.

♣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보육교사 덩티즈영

낭랑한 목소리로 아기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줄려서 칭얼대는 아이에게 한국의 자장가를 부드럽게 불러주는 선생님!!

주3일 출근하는 선생님을 우리는 매일 기다리죠.

엄청난 일을 똑딱 해치우고 도와줄일 없냐고 묻는 선생님.

얼굴도 이쁘고 얼굴보다 더 이쁜 마음씨...

선생님~ 우리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일해요.

♣ 신입 회원이 되신걸 환영합니다

김은아, 오금자, 한경민, 양경애, 김을미, 김철용



서 가 산 책

책과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씨울여성회에서 추천합니다.

작은 책이 세상을 바꿉니다.

- 편 집 실 -

페미니즘의 도전

■ 저자 : 정희진 ■ 출판사 : 조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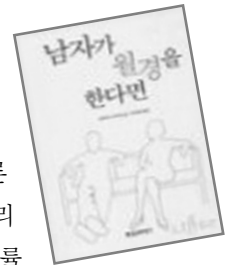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를 논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군 위안부 문제, 스와핑,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위안부 누드 사건에서 박근혜 패러디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여러 이슈와 사건들을 재 해석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상쇄시킨다.

여성주의는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남성 중심적 언어는 갈등 없이 수용되지만, 여성주의는 기존의 나와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주의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남성에게, 공동체에, 전 인류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적 지성을 제공한다. 남성이 자기를 알려면 '여성 문제를 알아야 한다. 여성 문제는 곧 남성 문제다. 여성이라는 타자의 범주가 존재해야 남성 주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 저자 : 글로리아 스타이넴 ■ 출판사 : 선실문화연구

이 책의 제목인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은 70년대에 저자가 쓴 짧은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월경에 대해 말하는 것은 터부시되고 있다. 또한 PMS(월경전증후군)이라는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를 개념을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마저도 쉽게 거론하곤 한다. "월경"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여성만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리고 많은 여자들도) 월경 중에는 작업능률이 떨어진다거나, 신경이 날카롭다..는 등의 근거없는 낭설을 만들어 왔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여성의 권한은 남자가 여성을 속박하고 노예화하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써먹혀왔다.





닥치고 정치 김어준의 명랑시민 정치교본



김어준 · 지승호 (역음) 지음 | 푸른숲 | 2011년 10월 10일 출간

찍으려면 알고 찍자!

인터뷰어 지승호가 묻고 김어준이 답하는 명랑시민 정치교본 『닥치고 정치』. <나는 가수다> 평론과 <나는 꿈수다>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얻은 김어준이 말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다. 보수와 진보를 사바나 시절 인간의 본능적 습성으로부터 구분 짓기 시작해 현 정권, 삼성, BBK 등 구체적인 주체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진보 정당의 한계 또한 확실하게 꼬집는다. 이를 통해 저자는 왜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야 하는지 현실 가능성에 근거한 전망과 플랜을 제시한다.

행복한 페미니즘

■ 저자 : 벨 훅스 ■ 출판사 : 백년글사랑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운동가인 저자가 현대 페미니즘의 쟁점을 쉽고 명쾌하게 집필한 대중적 페미니즘 입문서. 페미니스트 정치학, 자매애, 여성의 몸, 페미니스트 계급투쟁, 전지구적 페미니즘, 인종과 젠더, 페미니스트 남성성, 페미니스트 성 정치, 페미니즘과 영성, 미래의 전망 등 다양한 쟁점들을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들의 피상적 이해와 남성들의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는 명쾌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씨을여성회 활동

씨을여성회는 다양한 사업, 교육, 모임, 행사 등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성, 남성, 학생 등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무국에서는...

“우리 모두 모두 참여합시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독서토론모임

일시 :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오전10시~11시30분)

대상 : 관심있는분 누구나

참가비 : 무료(단, 책은 본인부담)

2. 창립 10주년 기념 및 행사

일시 : 3월31일(금, 오후2시~5시)

3. 여성주간행사

일시 : 7월 첫째주

내용 :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의식개선

4. 후원행사 : 생명 · 평화 · 사랑 · 나눔의 일일카페

일시 : 10월 중순 경

내용 : 기금마련 재정사업

5. 회원의 날

일시 : 11월30일(금, 오후 5시~8시)

대상 : 씨을여성회 회원(후원), 자원활동가

6. 연대활동

지역 유관단체 연대활동

경기여성연대 : 분기별 운영위 모임, 3.8여성대회 행사, 정기총회 등

광주여성연대 : 분기별 운영위 모임, 사업진행 등

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 성교육활동가 심화교육(매주 목, 오전10시~ 12시)
2. 상담사례 워크샵(넷째주, 월, 오전10시~12시)
3. 성교육 인형극반 모임 (매주, 화 오전10시~12시)
4. 제 6기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4월- 6월)
5. 제 10기 성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9월-11월)
6. 찾아가는 순회 성교육 실시(초,중,고,장애학교,학부모, 노인, 직장, 군대 등)
7. 성폭력피해자치유프로그램(3월-12월)
8. 성교육인형극 공연 실시(장애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9.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3월- 12월)
10. 성폭력예방, 성평등확산 거리캠페인행사(3월-11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1. 한국어교실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일시 : 1월-12월(매주 화,수,금 오전10시~오후4시)
일요교실(일요일 2시~4시)
- 교육비 : 무료

2. 취업교육 진행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내용 : 피부미용, 한국요리

3. 결혼이민자 가족 절기 행사

- 설날행사(2월), 추석행사(9월), 송년행사(12월)

4. 가족체육행사

-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 일시 : 5월

5. 가족나들이

-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 일정 : 8월

6. 엄마랑 아이랑 동화책읽기 모임

- 대상 : 결혼이민자 가족
- 일정 : 매주 1회

7. 문화이해교육, 요리교실, 노래교실

8. 가족자조모임

2012년 제 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상담활동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 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 4월2일~6월25일(매주 월요일)

■ 장소 : 씨울 여성회 교육관

횟수	일 시	시 간	강 의 내 용
1	4/2	9:00~12:00	오리엔테이션 /우리사회의 여성의 문제
		13:00~16:00	한국사회의 성문화
		16:00~18:00	섹슈얼리티 이해
2	4/9	9:00~12:00	상담의 이론과 실제
		13:00~16:00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16:00~18:00	여성주의 상담
3	4/16	9:00~12:00	성폭력 개념과 이해
		13:00~16:00	성폭력 상담원의 성인식 바로보기
		16:00~18:00	페미니즘의 이해
4	4/23	9:00~12:00	성의 역사
		13:00~16: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장애인)
		16:00~18:00	성폭력피해의 의학적인 대응방안(산부인과)
5	4/30	9:00~12:00	성폭력 관련 법의 이해
		13:00~18:00	성폭력 피해자이해 및 치유상담
6	5/7	9:00~12:00	성폭력 가해자의 이해
		13:00~18:00	사이버(인터넷) 성폭력의 이해
7	5/14	9:00~12:00	성폭력 관련 비디오 감상/토론
		13:00~18:00	one-stop지원센터 기관방문
8	5/21	9:00~12:00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13:00~16:00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16:00~18:00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실태와 대책
9	6/4	9:00~12: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아동)
		13:00~16: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청소년)
		16:00~18: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데이트)
10	6/11	9:30~18:00	성폭력 상담 실무실습(전화, 면접)
11	6/18	9:00~18:00	성폭력 상담 실무실습(전화, 면접)
12	6/25	9:00~12:00	성폭력 사건 법정 참관(동행)
		13:00~18:00	여성주의 상담원의 역할과 비전
		18:00~20:00	수료식

제 10기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교육은 우리사회 잘못된 성지식과 고정관념을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료자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성인대상 성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정 : 9월3일 ~ 11월5일(매주월요일)

■ 장소 : 서울 여성회 교육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일정	시간	강의내용	일정	강의내용	일정	강의내용
9/3	10:00 ~ 12:00	- 오리엔테이션 - 성교육 목적과 성교육강사의 자세	9/24	-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10/29	- 신나는 성교육을 위한 스피치기법
	13:00 ~ 15:00	- 페미니즘		- 새롭게 보는 동성애		- 유치부 대상 모의 강의 및 평가
	15:00 ~ 17:00	- 청소년의 성문화 이해하기		- 대중매체 속의 성의 이해		- 초등저(고)학년 대상 모의강의 및 평가 - 중학생 대상 모의 강의 및 평가
9/10	10:00 ~ 12:00	-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10/8	- 내 몸의 소중함과 성평등, 성폭력이해	11/5	- 고등학생 대상 모의 강의 및 평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의강의 및 평가 - 직장인을 대상 모의강의 및 평가 - 장애인 대상 모의강의 및 평가
	13:00 ~ 15:00	- 성의 역사		- 자기성애(자위) 성충동		
	15:00 ~ 18:00	- 십대의 성/ 자기 성 결정권		- 성과 사랑(포르노)		
9/17	10:00 ~ 12:00	- 성교육의 방법론	11/11	- 이상형의 성		
	13:00 ~ 15:00	- 인터넷 음란물 바라보기		- 성의 과학 I 성기구조, 성기 차이		
	15:00 ~ 17:00	- 여성주의 시각의 성교육		- 성의 과학 II 임신, 피임, 낙태, 성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원 활동가 (인증센터로 자원 활동시간 증명 해드립니다.)

상담활동 : 전화 및 면접 상담 활동

사무활동 : 자료수집과 우편물 발송, 사무지원, 홍보 활동 등

기타활동 : 강의, 법률, 의료지원활동 등

회원(CMS) 가입

회원(CMS) 가입으로 회비를 내시면 씨알여성회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씨알여성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10% 할인 혜택과 씨알여성회 정기 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액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회원(CMS) 가입, 재정후원, 물품후원, 상담활동, 교육활동, 사무활동, 기타 등

후원계좌

씨알 여성회 : <농협> 221012-51-026543 (예금주: 씨알여성회)

<국민은행> 248-01-0047-636 (예금주: 씨알여성회)

상 담 소 : <농협> 221012-51-026577 (예금주: 씨알여성회)

광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 <농협> 221012-55-001893 (예금주: 씨알여성회 결혼이민자)

<농협> 221012-56-078829 (예금주: 성명옥)

<국민은행> 248201-04-052615 (예금주: 성명옥)

2011년 하반기 후원에 주신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반후원

가재민, 강순원, 강미정, 강지혜, 강천심, 강희숙, 고미란, 곽라분이, 곽혜영, 권숙향, 구본숙, 김광휘, 김미향, 김상규, 김선광, 김신성, 김영숙, 김영자, 김은아, 김을미, 김진, 김철용, 김태규, 김후남, 남태경, 류만호, 류복연, 류희성(김경숙), 민말순, 박경애, 박연준, 박영자, 박용래, 박정순, 배기명, 배부강, 배현덕, 배현주, 서영주, 성명옥, 성미경, 소병훈, 손익배, 신행숙, 심준영, 안상미, 양경애, 양은미, 엄미자, 오마제, 유옥란, 윤석구, 윤정한, 윤정희, 윤혜경, 임복희, 이명원, 이미경, 이미정, 이상호, 이선범, 이승학, 이지윤, 이형숙, 이혜영, 이산하, 장운경, 정정자, 조영리, 조형자, 지희순, 채석연, 천덕희, 최종례, 최창곤, 한경민, 한기숙, 한상윤, 한이임, 한정혜 구포교회, 기독교여의사회, 동막교회, 복지교회, 분당남부교회, 사당다리섬교회, 서문교회, 신당중앙교회, 신당제4여전도회, 신당권사회, 신당제2여전도회, 예지교회, 인성중학교(서무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태원법무법인

♥물품후원

강미정(오징어1봉지), 강지혜(옷1가방), 강태희(음료수1박스), 고명수(스텝프2개), 곽혜영(커피10개), 김광휘(식사6인분, 빵/과자50개, 케익5개, 스카프7개, 책100권, 모자의소품10개), 김만복(과일1박스, 옷1가방, 주스1병), 김선경(과자1박스), 김수영(옷1가방), 김영숙(옷, 신발2가방), 김을미(떡1상자, 과일3상자), 김지영(수박1통), 딘디띠(강정1박스), 류복연(옷1가방), 린훤(음료수1박스), 메르시(피자1판), 바기(음료수3박스), 박경애(장난감3점), 박시내엄마(음료수1박스), 박용래(젓갈, 떡3박스), 배숙희(옷1박스), 보김록(토마토1박스), 보티미안(음료수1박스), 부티반, 마이짱(굴1박스), 설광섭(시계1개), 성목사조카(그릇4박스), 성주현(음료수1박스), 손윤미(굴2봉지), 쉐이첸(계란1판), 임영진(과자2박스), 양희경(옷2박스), 오마제(옷/가방2가방, 가방/액세서리1가방, 옷1가방), 오혜란(옷1가방), 원정희(음료수1박스), 유경화(음료수1박스), 유옥란(떡5팩), 윤영애(호박1개, 베트남음식10인분, 장난감/옷 2박스), 윤정한(옥수수1자루),

은채아빠(커피1통), 이경자(옷1가방), 이선의(포도1박스), 이혜영(옷1박스), 조셋(포도1박스), 조정주(음료수1박스), 즈영(포도1박스, 옷2박스, 과자1박스), 차명령(호박5개, 우거지1봉지, 호박1박스, 호박/무우/쑥3박스, 배추7봉지), 최미정(수박1통, 감/고구마2박스), 최성윤아버지(빵1봉지), 한경민과 신동현(초코파이5박스), 건강가정지원센터(케익1개), 광주시푸드뱅크(음료수76박스, 과자15스, 숙주나물22박스, 초코렛5박스, 사탕6박스), 토하나의집(소화재, 감기약2박스), 엘림선교회(옷2박스),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빵2봉지), 예지교회(옷8박스), 푸른우리교회(양말100족)

♥자원봉사활동

강미정, 강선경, 강솔휘, 강솔휘, 강예빈, 강윤진, 강준구, 강진형, 강태홍, 강해랑, 강현아, 강혜빈, 고성일, 고은애, 고하은, 곽민준, 곽진우, 곽태호, 김가영, 김가현, 김경아, 김도희, 김래경,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서영, 김성목, 김성민, 김성수, 김성현, 김소영, 김수민, 김수연, 김수현, 김을미, 김영민, 김영채, 김영택, 김은아, 김자영, 김정은, 김주연, 김주현, 김지영, 김지원, 김진선, 김현아, 김현희, 김혜린, 김환정, 김희경, 나혜수, 남보현, 남보현, 남소현, 문소희, 문수련, 문희지, 민건영, 박다란, 박민주, 박범수, 박세민, 박소진, 박수빈, 박이도, 박정현, 박지희, 박현주, 박현진, 백윤지, 서수빈, 설지희, 성다운, 성재원, 손지혜, 송다슬, 송혜진, 신승환, 신유정, 신재훈, 신혜원, 심다희, 심소연, 안나영, 안대민, 안영민, 안유정, 안유하, 안재경, 안정호, 안지영, 안진영, 양경애, 양예림, 양재영, 양채원, 양희경, 양희선, 엄세빈, 연지혜, 오마제, 오수빈, 오승택, 유민지, 유아라, 유옥란, 유재현, 유정인, 유지현, 윤성준, 윤성중, 윤예진, 윤정현, 윤찬영, 이경서, 이경자, 이덕영, 이산하, 이소연, 이아름, 이아현, 이연승, 이영주, 이우진, 이재원, 이정은, 이주연, 이지우, 이하은, 이한나, 이현민, 이혜영, 이화준, 이화준, 이화준, 임나운, 임도휘, 임동욱, 임민서, 임새찬, 임수은, 임정우, 임지현, 임하나, 장유림, 장유빈, 장창수, 장혜지, 전미정, 전성재, 전효희, 정소현, 정송림, 정수한, 정승조, 정영서, 정지수, 정지희, 정현석, 조민지, 조성현, 조현웅, 조혜정, 주신별, 주예찬, 즈 영, 지윤미, 진귀영, 차재영, 채정훈, 천선영, 최다빈, 최민지, 최용천, 최유빈, 최은우, 최종천, 최종철, 한동훈, 한상구, 한윤주, 한이임, 한주희 홍병호, 황세린, 황수련

씨을여성회에서 하는 일

씨을은 생명의 기본원리로 스스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합니다. 씨을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씨을여성회는 이러한 씨을사상을 이어받아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합니다.

상담활동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전화, 면접상담 및 연계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집단 상담 및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진행
교육활동	-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워크샵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학부모 성교육, 노인 성교육 -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의식교육 - 한글교육 양성평등교육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소그룹 모임	- 상담 사례 워크샵 모임 - 성교육 전문강사 워크샵 모임 - 독서 토론반 모임 - 성교육 인형극 반 모임
연대활동	- 광주여성연대 활동 - 경기 여성연대 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활동 - 여성단체, 시민 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 - 인권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 센터들과 연대활동 - 인권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 센터들과 연대활동
여성 인권활동	- 가정폭력, 성폭력, 성 매매 등 여성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화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 - 여성정치 참여 및 의정 방청 활동 - 취업알선 및 연계
문화, 홍보활동	씨을여성회 회보 발간(연2회) - 씨을여성회 홍보물 제작 -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식지 발행

| 부설기관 |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적 지원, 쉼터연계 및 수사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등) -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교육 인형극 전문강사 양성교육 - 성폭력예방과 성평등확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광주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 개별상담,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지원, 쉼터연계 및 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출입국 사무소 등) -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외국문화이해교육 - 가족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가족캠프 등

씨울 여성회 회원(CMS)가입신청서

씨울여성회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여성을 보호, 예방, 치유하고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후원자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 P	
이 메 일			
자동이체	예 금 주		
	은 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 월 1만원	☐ 월 2만원	☐ 월3만원
	☐ 월 5만원	☐ 월10만원	☐ 기타 ()
출 금 일	☐ 5일	☐ 25일	

상기 본인은 씨울여성회의 회원(CMS) 가입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 회원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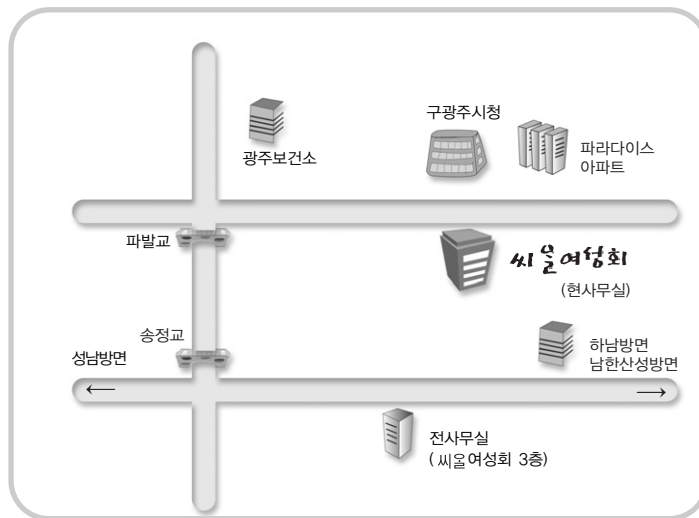
1. 교육수강비 10% 할인이 됩니다.
2. 특강, 워크샵, 보수교육 등에 무료 또는 실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집, 소식지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정보, 자료 등을 신속·정확하게 받아보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이 없이 지정한 날짜에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이체 되는 안전한 후원방법입니다.

사단법인 씨울여성회 이사장 김 광 휘
소 장 류 복 연
센터장 성 명 옥



씨얼여성회 찾아오시는 길



- ▣ 대중교통 이용 : 강변역(111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교대역(500-5)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모란역(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30분 소요)